

# 문화재 보호대에 웬 십자형 문양?

## 보호대 설치 규정 없어 정체불명 문양 난립 문화재 성격 맞는 현대적 디자인 개발 시급

부여에 사는 불자 정민호씨는 최근 인근 사찰을 참배하고 경내의 탑 앞에서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그러나 사진을 인화하고 나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언뜻 보기에도 선명하게 십자가 문양이 탑의 기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복지재단 폐사지 지킴이 연구위원 유규현씨는 답사를 다닐 때마다 문화재 보호대가 눈에 거슬린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지만 오히려 문화재 관람이나 보존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서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재 보호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에 복원되는 문화재의 경우 대다수가 문화재 보호대의 문양이 전통문양도 아닌 출처불명의 십자형 문양으로 바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 보수 전담 업체서 임의로 설치

문화재 보호대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역할과 문화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장신구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에서조차 아직까지 문화재 보호대 설치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문화재 복원시 새로 설치되는 문화재 보호대는 관련 업체에서 제작하기 쉬운 형태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방해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은 문화재 보호대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난간을 설치하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 역효과가 나고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재에 대한 국민 인식이 성숙되지 못해 보호대가 없으면 아이들이 뛰어 놀거나 가까이 가서 만지는 등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기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폐사지킴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부득이 문화재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설치 규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다.

문화재 보호대 설치시 문화재로부터 얼마 정도는 떨어져야 하며 높이는 어느 정도되고 그 안의 문양은 문화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상징으로 한다는 등 최소한의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치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오히려 획일화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 근자 문양 거꾸로 설치하기도

고궁박물관 소재구 관장은 "문화재 보호대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굳이 설치한다면 최소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며 "사찰에 있는 성보문화재의 경우 스님이 상주하고 신앙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대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화재 보호대 안의 문양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십자형 문양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너무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십자형 문양은 문화재 보수 업체에서 전통문양인 원자살문을 문양으로 활용하다가 현재의 출처 불명의 문양으로 고착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탑을 중심으로 본다면 전남 지방의 경우 시도 문화재급 이상 지정문화재 총 51기 가운데 27기가 보호대가 없으며 만자형 8기, 십자형 10기, 기타형 6기 등이다.

그러나 만자형의 경우 문양이 비틀어지거나 거꾸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최근 복원된 탑의 경우 만자형 문양이 출처불명의 십자형 문양으로 바뀐 곳도 많다. 실제로 전남 강진의 월남사지 석탑의 보호대는 만(卍)자가 뒤집힌 형태이며 구례 화엄사 원통전 앞 사자탑과 진도 금곡산 오층석탑의 경우는 복원 후 십자형으로 교체되었다.

조계종 문화부 이분희 행정관은 "성보문화재의 경우 불교를 잘 알릴 수 있는 현대적 각각의 문양 개발 등을 통해 개별 성보에 맞는 문화재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영양 화천 동탑 보호대가 만(卍)자 문양(사진 위)에서 십자형(아래)으로 바뀌었다.



경남 창녕 퇴천리 삼층석탑 보호대 문양이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다.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1>

### 무위와 열역학

<금강경> 끝부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유위법은 환포영과 같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여기서 유위법이란 'samskrtam'라는 산스크리트어의 번역어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묘어진'이라는 의미다. 그 반대어인 '무위'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되어 노장의 사상과 접합되어서 노장의 '무위'에 의해서 수용된 느낌이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이 '무위'의 개념이 자연, 즉 스스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칭송으로 이어진다.

상선이 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거스름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압축되는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싫어한다. 이러한 사상과의 융합이

관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관인데, 기계적인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100% 변환 가능하다. 열에너지는 기계적인 에너지로 100% 변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의 고민이었다. 열에너지를 100% 기계에너지로 바꾸어 줄 수만 있다면 가차나 농기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열역학은 시작됐다.

열에너지의 원천이 밝혀진 것은 19세기 말 볼츠만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다. 볼츠만은 열에너지를 '기계입자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기계입자가 압력을 벽을 두들겨 주면 압력이 높아지고, 우리 피부를 두들겨 주면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이해

## 열에너지, 기계에너지로 100% 전환 불가능 의도적 행위가 행복 가져온다는 것도 허상

독특한 동양 불교의 산사 문화를 만들었지 모른다.

무위라는 말은 지난 3000년 서양을 달구었던 물리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열역학을 떠올리게 한다. 열역학은 1800년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잘 정립된 학문분야이면서, 동시에 20세기 인간 및 자연관에 영향을 끼친 학문 분야다.

열역학은 '우주 만물에서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며, 항상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당연한 원리로 들리는 이 열역학이야말로 생물계와 우주계가 변화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법칙으로 생각된다.

약 3000년 전 서양 사람들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을 시작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바로 열에너지와 기계에너지의 상호 변환이다. 증기

기계의 움직임이 이처럼 무질서한 것이다 보니 우리가 임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일단 열에너지로 변환되고 나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에너지로의 100%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의도적인' 기계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전환되지만, '혼란스러운' 열에너지는 기계에너지로 고스란히 전환되지 못하는 것이 우주의 실상이다.

이러한 우주의 활동의 원리가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위 아닐까.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 나타나는 것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열역학의 원리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 “정림사지 5층석탑 자리에 목탑 있었다”

### 이병호 학예연구사 주장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알려진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국보 제 9호) 자리에 원래 목탑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국립부여박물관 이병호 학예연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근 발간된 <미술자료> 72·73호에서 '부여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의 제작기법과 봉안 장소'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사제로 불태워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들이 현존하는 5층석탑 이전에 존재했던 목탑의 내부 장식인 탑내서상(塔內塑像)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학예연구사는 또 "1979년 발굴 조사 당시 소조상과 함께 출토된 '단판연화문(單板蓮花文) 수막새'를 통해 7세기 초중반에 정림사지에서 건물의 중건이나 중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화재 등의 이유로 목탑이 없어진 이후 지금의 오층 석탑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이혼의 원인은 작은 견해차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지만, 평등한 부부관계를 긍정적 인 어포트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부부간에 인격체로서의 상호존중을 통해 부부정체성을 확인하여 '이혼'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예방 하고, 또한 가족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 '이혼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상담원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상담가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6년 4월 10일(수) ~ 6월 17일 (100시간)
- ◆장 소 : 역사문화기념관,연꽃 교육장 ◆인 원 : 30명(선착순)
- ◆수강료 : 23만원(당일25만원) 우리은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 ◆문 의 : 02)738-5586,5568 / 팩스 02)738-7576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홈페이지 www.kwba.or.kr

1.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4월 10일	1. 성·가정폭력법 해설 2. 남녀평등과 여성의 미래	5월 29일 3. 가족구조와 가치변화 4. 한국 가족의 현주소
2. 아내 확대 발생과 원인 분석		
4월 11일	5. 가정폭력 배경과 원인 6. 가정폭력	5월 29일 8. 부정적 감정 다루기
4월 14일	7. 가정폭력 상담의 전반적 이해	5월 30일 9. 부부의 갈등 및 의도,이혼과정상담 10. 여성의식 변화로 이뤄진 가정
3.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 위기		
4월 15일	11. 여성인권과 여성운동 12.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문제	6월 2일 14. 이혼의 실태와 제반문제
4월 16일	13. 왜! 이혼가정이 늘어나는가!	6월 3일 15.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16. 이혼가정의 자녀생활과 실태
4. 건강한 가족제도 및 치료상담		
4월 17일	19. 건강한 가족제도	6월 9일 17. 정신적 수양을 위한 음악치료
5월 12일	20. 성폭력 상담의 이론과 실제 21. 가족문제 상담, 성폭력 상담사례	6월 10일 18. 가족치료의 통합적 접근 22. 부부대화법 및 가족치료
5. 가족문제 상담 및 역할연습		
5월 19일	23. 경전에 나타난 상담	6월 16일 26.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기법
5월 26일	24.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 25. 상담사례를 통한 역할연습	6월 17일 27. 가족치료의 통합적 접근 28. 가정폭력 비디오 및 수료식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한다.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회장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